

성인전기 남성의 부부애착이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과 아내를 위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pousal Attachment on Job Attachment/Commitment, Job Quality, and the Support Provided for Wife in Male Early Adulthood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시간강사 황 은

Ewha Womans University
Part-time lecture : Whaung, Eun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가설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spousal attachment on job attachment/commitment, job quality, and the support provided for wife in male early adulthood.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 research. Based on adult attachment approach,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The secure attachment with spous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attachment/commitment, The anxious-avoid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attachment/commitment, and Th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attachment/commitment. The secure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quality. The anxious-avoid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quality, and Th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quality.

The secure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dinary support for wife, The anxious-avoid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ordinary support for wife, and

Corresponding Author: Eun Whaung, Department of Consumer·Humandev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98 Fax: 82-2-3277-2852 E-mail: shbyun1@korea.com

Th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ordinary support for wife. The secure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nonordinary for wife, The anxious-avoid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nonordinary support for wife, and The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with spous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nonordinary support for wife.

The results was discussed on the importance of spousal attachment for healthy job life and family life.

주제어(Key Words): 부부애착(spousal attachment), 직무애착 및 헌신(job attachment/commitment), 직
무의 질(job quality), 아내를 위한 지지(the support provided for wife)

I. 서론

성인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독립을 통해 부부라는 새로운 중요한 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고,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되는 직장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인전기는 성인기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에 연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건강한 가정과 직장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성인전기와 관련된 선행이론 및 연구들은 성인전기 남성들이 가정보다는 직장에 대해 비중을 더 많이 두어왔다는 것과 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이 수용으로 인하여 아내에 의해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의 변화로 인해 생계부양자 역할과 관련된 직무 헌신이나 직무의 질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부부관계에 대한 참여가 건강한 가정의 확립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Vaillant는 성인전기를 친밀감 형성의 시기로만 본 Erickson이론에 추가하여 이 이론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던 20대와 40대의 중간시기(Gilligan, 1995)에 '직업강화'라고 하는 단계를 더하였다. Vaillant에 의하면 성인전기의 초반은 Erickson의 이론에서처럼 안정된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이지만 다음에는 결혼관계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모든 관심이 직업에 몰입되는 직업적 강화의 시기이다(Papalia, Olds & Feldman, 1994). Levinson도 역시 성인전기 동안 남성들의 주요한 관심이 직장과 가족에 모두 집중된다 할지라도 이 시기 남성들의 첫 번째 관심 영역은 직장이고, 이 시기를 여전히 직업적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붓는 시기로 규정하였었다(Chi-Ching, 1995). Gilligan(1995)에 의하면, 청년기 동안 겪는 경험을 통해 남성들은 자아를 규정짓고 독립을 강조하게 되며, 독립을 강조하는 남성들은 성인전기동안 개인적인 업적, 직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인간관계들은 이러한 관심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남성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며 자신의 감정표현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를 성공과 실패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호작용도 없고, 정서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와의 결혼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성공적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있고, 아내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만한 실제적인 상호작용도 없다고 하였다.

한경혜(1996)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성인전기에 해당하는 남성들은 30대 이후 직장초기의 업무의힘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남으로써 비교적 직장에서의 역할요구가 줄어들고, 정서적, 경제적 압박이 줄어드는 서구의 경향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승진에 대한 부담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생계부양자로 규정되어지는 남편의 역할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결혼이 도구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로 유지되었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문을 빛내고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을 쌓고 그의 아내는 가정의 울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남편들의 가정과 직장은 충분히 확고하게 유지 될 수 있었고 소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김은희, 1993; 김자혜, 김미숙, 1990; 김효신, 1987; 조혜

정, 1993).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도구적이고 실제적인 결혼에서 애정, 친밀감, 사랑에 기반한 결혼으로 변화하면서(박의순, 1997; 신수진, 1998) 가정내에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변화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생계부양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만으로는 그들의 가정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미 연구자들(이숙현, 1995; 최혜경, 1995; 한경혜, 1996)은 남성들의 가정과 직장간의 조화의 중요성에 근거한 연구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남성들에게도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연구(허경옥, 1994; 문숙재, 조성은, 1995; 조미환, 임정빈, 1997)는 남편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식시켜 주었고 이에 대한 참여를 동기화시키는 데 유용한 분석을 제시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들의 아내를 위한 지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 만큼이나 남편들의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다. 연구들은 가족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 스트레스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로부터 회복하는데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지지는 가족원으로서의 아내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함으로써(Hirsch & Reischl, 1985; Sandler, 1980; Quamma & Greenberg, 1984),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게 하고, 부부관계에서의 역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대표적인 상호작용으로써 부부관계라는 가족체계의 한 하위체계를 건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부모자식관계와 같은 다른 하위체계도 건강하게 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전기 남성들에게 직장가정이 모두 중요함을 인식시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이 두 영역에서의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이 모두를 동기화 시키는데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같은 목

적을 두고, 성인전기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 뿐 아니라, 동시에 아내에 대한 사회적 지지로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부부애착은 두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고려되어지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므로 부부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전기의 구분

인간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환경적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발달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으며,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한다(김명자, 1989; 윤진, 1991).

성인기는 보통 성인전기, 성인중기, 성인후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며, 인생주기 중 성숙한 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Pelmutter & Hall, 1985). 따라서,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성숙에 도달한 시기로 정의할 수 있으나, 언제 성숙에 도달했으며, 이 성숙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성숙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생리적 성숙은 재생산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이 의미에서 보면, 13세된 소녀와 15세된 소년도 성인으로 부를 수 있다. 심리적 성숙은 어떤 정신적 정서적 수준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미래를 사고하며, 가설적 상황을 생각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헌신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30세에도 어떤 사람은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회적 성숙은 가족과 직업역할을 떠맡게 되는 시기에 도달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성인은 결혼과 가족의 확립 경제적인 자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성숙은 다양한 법적 관리를 갖게 되는 시기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투표권, 운전면허증, 음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Pelmutter & Hall, 1985).

이상의 성숙에 대한 어떤 정의로도 성인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성숙에 이르고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 성숙의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시기로 종합하여 정의한다면 성인기의 시작 시기를 20세 이상의 가족과 직업의 역할을 떠맡는 시기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성인전기의 끝은 성인중기의 시작 시기(35세에서 55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와 관련되지만 이 경계를 정의하는 것 역시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김명자, 1989). 본 연구에서는 단계이론인 Levinson의 관점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일어나는 성인기의 핵심적인 삶의 주제인 가족과 직업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성인기 삶에 있어서 팔목할 만한 전환이라고 보고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40세까지를 성인전기의 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40세까지를 성인전기로 정의하는 것은 발달론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도 일치하기도 한다(Clark-Stewart, Permutter & Friedman, 1988).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전기를 결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20세 이상 40세 이상의 시기로 정의하였다.

2. 부부 애착

연령의 증가와 함께 애착대상은 전환된다. 즉, 부모애착에서 또래집단애착으로 그리고 성인기 애착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Bowlby에 의하면 결혼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성인기 애착이며, 결혼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의 동료감이 일과 탐색을 가능케 해주는 안전기반을 제공해 준다. 모자관계가 기본적으로 수유에 기반하지 않은 것과 같이 결혼도 성적 욕구충족에 기반하지 않으며, 성인기에 있어서 결혼의 주요기능은 심리적인 것이고 바로 안전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Holmes, 1993).

성인기 대표적 애착인 이 부부애착은 기본적으로 아동기의 부모자녀애착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다 할지라도(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1; Sroufe & Fleeson, 1986) 배우자와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Epstein, 1980; Sarason 등, 1991), 혹은 새로운 역할을 떠맡는 것과 같은 생활사건(Caspi & Elder, 1988)이나 자발적인 성찰(Ricks, 1985)을 통해 '수정(Revising)' 혹은 '쇄신(Updating)' 될 가능성이 있다(Bowlby, 1973).

부부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정형, 불안정-회피형, 그리고 불안정-양가형 중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애착유형을 한가지만 선택하게 하는 3범주형이나 안정형, 몰입형, 두려움형, 그리고 무시형 중 가장 가까운 애착유형을 한가지만 선택하게 하는 4범주형의 측정도구보다는 안정적 요인, 불안정-회피요인 그리고 불안정-양가요인에 대해 각각 그 정도를 응답을 하도록 하는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미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범주형보다는 4범주형의 측정도구가 더 적절하다는 결과가 있으나(장휘숙, 1997), 기혼자에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형 측정도구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할때 안정적 애착유형으로 지나친 편중을 보여 분석불가능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Kobak & Hazan, 1991). 그리고 Simpson(1992), Collins와 Read(1990)도 성인들의 인지적 특성이 아동기보다는 더 정교하고 세분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문항의 리커트 측정도구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들은 기혼자의 경우, 다문항 리커트 측정도구가 그들의 애착을 더 잘 반영해 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애착이론은 전통적으로 인간발달이 이루어지는 근원지로서의 애착의 역할과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한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owlby, 1973; Holmes, 1993; Lapsley, Rice와 FitzGerald, 1990; Papini와 Roggman, 1992; Waters & Sroufe, 1983). 이와 같이 애착이 인간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지와 행동에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안정적 애착이 가져

다주는 안전기반(안정적 애착에 의해 창조되는 정서적 환경, Holmes, 1993)의 역할과 애착이 형성되는 동안 동시에 짜여지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내적표상의 역할로 인한 것임을 연구자들은 일관성있게 보고하고 있다(Bowlby, 1973; 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Main, Kaplan & Cassidy, 1985).

이 부분에서는 애착의 안전기반과 내적표상을 통한 역할을 기본적인 맥락으로 하고,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부애착과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부애착과 아내를 위한 지지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부애착이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수행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인기를 대상으로 성인기애착과 일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는 Hazan과 Shaver(1990)의 연구이다. Hazan과 Shaver(1990)는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의 사람은 이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반면,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불안정-회피애착의 사람은 자신을 거부하는 관계에 대해 무시하고 회피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게 되지만, 진정한 일의 추구라기 보다는 회피수단으로 초래되는 것이므로 결코 안정적인 애착의 사람만큼 일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불안정-양가애착의 사람은 양가적인 관계로 인한 해소되지 않은 관계의 욕구로 인해 양가적인 관계에 집중하게 되므로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일의 수행에서 효율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18세에서 79세에 이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불안정-회피애착유형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시간은 길었으나, 안정적 애착유형보다 직무성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양가적 애착유형은 과도한 책임을 자초하고, 일에 대한 불평 및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실패감을 가장 많이 느끼며,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 애착유형은 높은 수준의 직무성과와 인간관계에 대한 적은 불안감 및 적은 실패감, 직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 직장에 대해 더 적은 분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ge, Hammen, Davila, Paley, Herzberg 그리고 Lindberg(1997)은 134명의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낭만적인 성인기 애착과 일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2년이 지난 후 직장에서의 긴장 및 직무성과불안감, 그리고 작업량의 과다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 안정적 애착일수록 2년이 지난후 일로 부터 보람이나 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dy와 Barkhan(1994)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상담센터에 내담한 남녀내담자들 219명을 대상으로 애착과 직장에서의 다양한 행동 및 태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관계에서 불안정-양가적 애착 및 불안정-회피애착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같은 사무실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더 나빴고, 동료직원들에 대해 불만이 더 많았으며, 직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화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에 대한 흥미상실을 나타냈으며, 그 동안의 직무활동방식에 대한 수치심, 직장에 대한 불편감, 걱정, 동요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들은 안정적 애착이 불안정-회피애착이나 불안정-양가애착에 비해 직장에서의 다양한 행동 및 태도등에서 더 바람직함을 일관성있게 보여주고 있고 직장에서의 다양한 행동 및 태도는 보람, 직무에 대한 흥미상실, 실패감, 직장에서 대한 분노, 직장에 대한 불편감, 걱정, 동요감, 직장내 인간관계,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자율감,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직무성과 불안감, 직무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또한, 애착관련선행연구를 보면, 애착은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수행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인성(Clausen, 1981; Bray & Howard, 1983; Howard, 1984; Pemutter & Hall, 1992) 그리고

스트레스(Keita 등, 1988; Ivancevich, Matterson, Freedman & Philips, 1990; Brief, Burk, George & Robinson, 1988)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애착과 인성간의 결정적인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Bowlby, 1973), Mikulincer, Florian과 Weller(1993), Watson과 Clark(1984), Watson과 Pennebaker(1989), 그리고, Watson, Pennebaker와 Folger(1987)은 안정적 애착이 외부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 건설적인 전략을 취하게 하는 반면, 불안정적 애착은 객관적인 스트레스원이 없을 때조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스트레스, 긴장, 그리고 불만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성인기 애착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애착과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수행의 질과 관계가 높은 지적능력, 인성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애착이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부부애착이 아내를 위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부부애착과 아내를 위한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조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부부애착과 아내를 위한 지지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간접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Hazan과 Shaver(1987)에 의하면 낭만적 파트너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타인과 편안하고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타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특징화하였다. 반면, 낭만적 파트너와 불안정-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타인과 친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하더라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타인과 건강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으로 특징화하였다. 그리고, 낭만적 파트너와 불안정-양가적인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관계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애석함으로 인해 관계에 대해 극도의 친밀감과 의존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분

노를 표출하는 사람으로 특징화하였다.

Kobak과 Soery(1988)의 연구에서, 배우자에 대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민감하고, 사려깊으며, 이해심이 높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이야기에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배우자가 화가 나 있을 때 유용하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되어 주며, 배우자가 디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으로도 묘사되었다. 뿐만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자발적으로 하며,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동등하게 서로간의 지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특징화하였다.

Simpson, Rholes, & Nelligan(1992)는 83명의 연애 중인 미혼남녀쌍을 대상으로 실험실 관찰연구를 통해, 남자친구가 이성여자친구와 안정적 애착일수록 여자친구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여자친구에게 더 많은 감정이입, 정서적 지지, 재확신을 줌으로써 파트너를 진정시켜주는데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친구의 요구에 반응적이었고, 온정적이었으며, 우호적이었고, 유머도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단, 불안정-양가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설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고, 연구결과에서도 불안정-양가요인은 이상과 같은 행동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impson 등(1992)은 Hazan 등(1987)이 언급 하였던 것과 같이, 불안정- 양가애착은 과거와 현재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에 관계에 몰입하고 민감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욕구에 몰입하고, 타인에 대해 분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아몰입이 타인을 위해 진정으로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idwell, Reis와 Shaver(1996)는 1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주일간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특성과 정서특성을 일기식으로 된 설문지에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애착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 더 돕고 지지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은 안정적 애착이 불안정-회피애착이나 불안정-양가애착에 비해 아내 혹은 타인에 대

해 민감하고, 좀 더 감정이입적이며, 지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내 혹은 타인이 스트레스상태에 있거나 화가 나있을 때 상대방을 안정시키는 데 유용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안정적인 부부애착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과 아내를 위한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만, 불안정-회피적인 부부애착과 불안정-양가적인 부부애착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 그리고 아내를 위한 지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연구가설1-1) 부부애착의 안정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1-2) 부부애착의 불안정-회피요인과 불안정-양가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연구가설2-1) 부부애착의 안정요인은 아내를 위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2) 반면, 부부애착의 불안정-회피요인과 불안정-양가요인은 아내를 위한 지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절차

1999년 1월 13일에서 3월 2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선정한 질문지가 대기업 사원에게 무리가 없는 문항인지 대기업의 임원을 대

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런 다음 대기업 사원 5명에게 배포하여 먼저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전화로 설문지 전체에 나타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에 대한 수정을 받았다. 본조사는 1999년 3월 8일에서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3000대기업(한국능률협회, 1991)에 나타난 기업들을 참고로 임의로 몇 개의 대기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470부가 배포되었으며 408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7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 376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23세에서 40세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연령은 33.3세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가 76.1%, 대학원졸업이상자가 23.4%로 이와 같은 높은 교육수준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소득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15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184만원이었다. 아내의 소득은 없는 경우가 56.5%였으며, 있는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 48만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족소득은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15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 가족소득은 2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취업수준은 주부가 6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사무직 종사자가 23.7%로 가장 많았다. 결혼년수는 5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년수는 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50명이었으며, 있는 경우, 3명이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수는 1.3명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첫자녀의 교육단계를 보면 유치원기가 63%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학교기도 있었으나, 13.3%에 불과하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범위	빈도(백분율)	변수	범위	빈도(백분율)
연령	23-30세	83(22.1)	아내의 직업수준	주부	237(63.0)
	31-35세	191(50.8)		서비스/자영업	3(0.9)
	36-40세	101(26.9)		사무직	89(23.7)
	무응답	1(0.3)		전문/관리직	18(4.8)
가족소득	100만원 이하	15(4.0)	결혼년수	무응답	29(7.7)
	150만원 이하	56(14.9)		1년 이하	33(8.8)
	200만원 이하	103(27.4)		5년 이하	169(44.9)
	250만원 이하	556(14.9)		10년 이하	148(39.4)
	300만원 이하	59(15.7)	11년 이상	25(6.6)	
	350만원 이하	31(8.2)	무응답	1(0.3)	
	351만원 이상 무응답	36(9.6) 20(5.3)	자녀수	0명	50(13.3)
본인의 소득	100만원 이하	38(10.1)		1명	176(46.8)
	150만원 이하	91(24.2)		2명	141(37.5)
	200만원 이하	147(39.1)		3명	8(2.1)
	250만원 이하	67(17.8)	무응답	1(0.3)	
	251만원 이상 무응답	29(7.7) 4(1.1)	첫자녀 교육단계	유치원기	237(63.0)
아내의 소득	없음	213(56.6)		초등학교기	78(20.7)
	50만원 이하	14(3.7)		중등학교기	5(1.3)
	100만원 이하	46(12.2)	해당없음	50(13.3)	
	150만원 이하	39(10.4)	무응답	6(1.6)	
	151만원 이상 무응답	29(7.7) 35(9.3)	막내자녀 교육단계	유치원기	128(34.0)
본인의 교육수준	대학 졸업	286(76.1)		초등학교기	20(5.3)
	대학원 졸업이상	88(23.4)		중등학교기	없음
	무응답	2(0.5)	해당없음	225(59.8)	
			무응답	3(0.8)	

막내자녀의 교육단계를 보면, 유치원기가 35%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평균 1명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 자녀들은 대부분 유치원기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장관련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평일 하루평균 근무시간(이하 근무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함)은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5시간 30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11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11시간 1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평균근무시간은 근무가 없는 경우가 8명이었으며, 근무가 있는 대다수의 경우, 최고 2시간에서 최고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토요일에는 5시간 13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인 경우, 97.1%에 해당하는 거의 대다수의 연구대상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명이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최소4시간에서 10시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볼때 일요일 근무시간은 9분이었다.

주중 회식에 할애되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15시간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3, 4시간할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약 5시간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년수는 1개월에서 15년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1년이하를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5년이하가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입사한지 6년 6개월정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직장관련 특성

변수	범위	빈도(백분율)	변수	범위	빈도(백분율)	
평일 근무시간	8시간이하	3(0.8)	주중 회식시간	2시간이하	58(15.4)	
	9시간이하	15(4.0)		4시간이하	141(37.5)	
	10시간이하	65(17.3)		6시간이하	80(21.3)	
	11시간이하	139(37.0)		8시간이하	31(8.2)	
	12시간이하	98(26.1)		그 이상	42(11.2)	
	13시간이하	35(9.3)		무응답	24(6.4)	
	그 이상	18(5.1)		입사년수	1년이하	13(3.5)
	무응답	2(0.5)			3년이하	60(16.0)
토요일 근무시간	근무없음	8(2.1)	5년이하		104(27.7)	
	4시간이하	83(22.1)	7년이하		50(13.3)	
	5시간이하	114(30.3)	9년이하	64(17.0)		
	6시간이하	95(25.3)	그 이상	75(19.9)		
	7시간이하	38(10.1)	무응답	10(2.7)		
	그 이상	32(8.5)	직위	평사원	75(19.9)	
	무응답	6(1.6)		대리	140(37.2)	
일요일 근무시간	근무없음	365(97.1)		차장	117(31.1)	
	4시간이하	3(0.8)		과장	20(5.3)	
	5시간이하	2(0.5)		부장	6(1.6)	
	6시간이하	0(0)		무응답	18(4.8)	
	7시간이하	0(0)				
	그 이상	4(1.1)				
	무응답	2(0.5)				

다. 직위는 평사원에서 부장까지 있었으며, 대리 와 차장이 가장 많았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부부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기타 연령, 가족소득, 본인의 소득, 아내의 소득, 자녀의 수, 교육수준, 아내의 취업유무, 자녀 연령과 같은 일반적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중 부부애착 측정도구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을 측정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부 애착측정도구

Hazan과 Shaver의 낭만적인 이성관계에서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다문항 리커트형 측정도

구를 전효정(1996)이 17문항으로 간추려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안정요인에는 6문항이 포함되었고 Cronbach's Alpha = .87이었으며, 불안정-회피요인에는 3문항이 포함되었고 Cronbach's Alpha = .59이었으며, 불안정-양가요인에는 3문항이 포함되었고 Cronbach's Alpha = .78의 신뢰도를 보였다. 각 문항에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 측정도구

직무애착 및 헌신에 관한 측정도구는 오철환(1985)이 사용한 직무애착 및 헌신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에 이종복(1989)의 직무만족요인중

〈표 3〉 부부애착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문항	신뢰도
안정요인	나는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대해 준다고 믿는다. 나는 아내가 내가 필요로 할때 나를 위해 있어 주리라 믿는다. 나는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아내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다. 아내는 나를 잘 알고 이해한다.	.87
불안정-회피요인	나는 대부분의 일(걱정, 관심 등)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둔다 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아내와 나눈다.(-) 나는 아내로부터 독립된 시간이 필요하다.	.59
불안정-양가요인	나는 아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만 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내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아내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까봐 걱정한다.	.78

(-)는 역코드한 것임

3. 6번 문항을 제외시킨 후의 결과임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재미를 추가하였다. 직무에 대한 보람과 재미, 직무에 대한 애착 및 헌신적인 자세, 의욕,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고자 하는 의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10문항이었으며, Cronbach's Alpha = .85이었다.

직무수행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는 신창식(199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업무처리속도,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정확성, 업무개선실적, 거래인(직장동료나 직장상사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과의 친분, 업무의 량, 목표달성 기여도, 기한 준수, 계획적인 업무실천, 성실한 수행, 업무처리의 정확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20문항이었으며, Cronbach's Alpha = .98이었다.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해 헌신적이고, 직무수행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아내를 위한 지지 측정도구

아내를 위한 지지측정도구는 House등(1987)의 사회적 지지기능요인과 각 기능에 포함된 활동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였다. House

등(1987)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도구적 기능, 사회적 동료감, 동기적 기능, 존경의 기능, 지위적 기능, 정보적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지위적 기능은 결혼 상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수가 포함되는 기능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지위적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기능을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총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22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원래, 3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3요인 중, 물질적 지지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 및 가계 꾸리는데 필요한 돈 제공' '기분전환거리(외식, 영화, 연극)을 같이 찾아줌' 그리고 '사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선물함'의 신뢰도가 .53으로 낮아 연구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연구분석에 사용된 일상적인 지지요인에는 6문항이 포함되었고 Cronbach's Alpha = .85이었으며, 비일상적인 지지요인에는 6문항이 포함되었고 Cronbach's Alpha = .76이었다. 각 문항에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아내를 위한 지지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문 항	신뢰도
직무 애착 및 헌신	<p>내 직무에 애착을 갖고 있다 나의 일이 재미있다*** 일은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 현재 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이 일에 의욕적이다 현재의 팀이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한다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p>	.85
직무의 질	<p>나에게 부여된 업무를 차질없이 완수한다 팀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다 팀이나 부서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한다 나 스스로 설정한 업무목표를 달성한다 주어진 업무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수행한다 팀내에서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 자신을 개선한다 업무처리에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준수한다 나와 동료와의 관계는 만족스럽다 다른 팀이나 팀내의 다른 사람에게 업무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나의 업무처리능는 정확하다 거래인과의 친분이 좋다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수행과정상 난관이 발생하여도 끈질기게 추구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나의 업무처리속도는 신속하다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팀내에서 나의 담당업무는 중요하다 나의 업무개선실적은 높다 업무수행시 항상 원가의식(회사의 손이익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임한다 정해진 담당업무 외에도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업무등을 지원한다</p>	.98

<표 5> 아내를 위한 지지의 문항내용 및 신뢰도

	문 항	신뢰도
일상적인 지지	<p>이야기를 들어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혹은 들어준 다음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사실을 겉으로 표현함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 설명이나 정보를 제시해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함 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동의해 줌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려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방향, 방법등을 제시해줌.</p>	.85
비일상적인 지지	<p>배우자의 결점이나 약점을 꼬집지 않고 감싸줌 친족행사나 그외 분들의 행사(돌, 결혼식등)에 동행하여 같이감 친구모임이나 회사모임에 같이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로 대신 문제해결을 해 줌 혼란스럽거나, 충격받아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안정시켜주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취함 내가 어려울 때나 처져있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함</p>	.76

4.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한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문제인 부부애착이 직무애착 및 헌신 및 직무수행의 질과 아내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부부애착이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부애착의 안정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칠것이다라는 (연구가설1-1)과 부부애착의 불안정-회피요인과 불안정-양가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1-2)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직무애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6%증가한 11%로 나타났다. 투입된 총 11개의 변인 중 불안정-양가요인($\beta= .23, p<.001$)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불안정-양가가 낮을 수록 직무애착 및 헌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부가적으로 보면, 통제변인들인 가족소득($\beta=.01$), 본인소득($\beta=.02$), 교육수준($\beta=.01$), 자녀수($\beta=-.08$), 그리고 아내의 취업유무($\beta=.09$)는 영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전 자녀의 유무와 연령의 영향력은 각각 $\beta=.12, \beta=.19$ 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무수행의 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소득($\beta=.23,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8%증가한 24%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인중 1단계에서 유의미했던 본인 소득의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안정요인($\beta=.16, p<.01$), 불안정-양가요인($\beta=.41,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요인이 높아질수록 직무수행의 질이 높아지고 반면, 불안정-양가요인이 낮을수록 직무수행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보면, 통제변인인 연령($\beta=.01$), 가족소득($\beta=.08$), 아내소득($\beta=.09$), 자녀수($\beta=.02$), 아내의 취업유무($\beta=.06$), 그리고 학령전 자녀의 유무($\beta=.03$)는 영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소득과 교육수준은 각각 $\beta=-.11, \beta=.12$ 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우선, 본 연구가설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면, 안정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직무수행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회피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정-양가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 모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애착 및 헌신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통제변인에 추가로 투입한 결과, 단지 6%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직무수행의 질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통제변인에 추가로 투입한 결과, 18%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설명력은 작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제변인보다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요인이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에 미치는 설명력이 작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좀 더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원래 애착의 개인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잘 활성화되고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의 개인차에 의한 행동의 결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고

<표 6> 일반적인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부애착이 직무애착과 직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애착 및 헌신		직무수행의 질	
	B(β)	B(β)	B(β)	B(β)
통제변인				
연령	.01(.05)	.00(.19)	.00(.19)	.00(.01)
가족소득	2.80E-04(.05)	-4.7E-05(-.01)	6.99E-04(.10)	5.69E-04(.08)
본인소득	-.00(-.11)	-1.95E-04(-.02)	-.00(-.23) *	-.00(-.11)
아내소득	.00(.09)	.00(.10)	.00(.09)	.00(.09)
자녀수	-.09(-.08)	-.09(-.08)	-.04(-.03)	-.03(-.02)
교육수준	.03(.02)	.02(.01)	.12(.07)	.20(.12)
아내의 취업유무	-.07(-.05)	-.13(-.09)	-.04(-.02)	-.08(-.06)
학령전 자녀의 유무	.19(.13)	.18(.12)	.03(.02)	.05(.03)
독립변인				
안정요인		-.03(-.04)		.14(.16) *
불안정-회피요인		-.03(-.06)		-.01(-.01)
불안정-양가요인		-.13(-.23)***		-.25(-.41) **
constant	2.50	3.48	2.29	1.76
R ²	.05	.11	.06	.24

*p<.05 **p<.01 ***p<.001

보는데, 직무애착 및 헌신이나 직무수행의 질은 애착이 크게 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상황이고 그러므로 애착의 개인차로 인한 설명력이 작았던 것이 아닌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애착요인의 이러한 작은 설명력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대기업 사원들이고, 따라서 비교적 원래 타고난 지적능력이 우수하며 경쟁력이 있고 직무애착 및 헌신이나 직무수행의 질 자체에서 큰 차별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애착요인의 설명력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닌가를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제변인들인 연령, 가족소득, 본인소득, 아내소득, 자녀수, 교육수준, 아내의 취업유무, 학령전 자녀의 유무의 영향력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로 인해 초래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성인전기로 하고 대기업 사원들로서 한정하였기 때문에 통제변인들에 있어서 대상자간에 개인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또다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 부부애착이 아내를 위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부부애착의 안정요인은 아내를 위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2-1)과 부부애착의 불안정-회피요인과 불안정-양가요인은 아내를 위한 지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먼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beta=-.18,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7% 증가한 13%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중 자녀수($\beta=-.18, p<.01$), 안정요인($\beta=.18, p<.01$), 그리고 불안정-회피요인($\beta=-.13, p<.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가 많아지고, 안정요인이 높아질수록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가 많아지며, 불안정-

〈표 7〉 일반적인 변인을 통제한 후의 부부애착이 아내를 위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일상적인 사회적 지지		비일상적인 사회적 지지	
	B(β)	B(β)	B(β)	B(β)
통제변인				
연령	-1.5E-02(-.07)	-8.2E-03(-.04)	2.11E-03(.01)	1.31E-02(.06)
가족소득	1.69E-04(.03)	1.56E-04(.02)	1.39E-04(.02)	-0.3E-04(-.05)
본인소득	3.87E-04(.03)	3.99E-04(.03)	3.18E-04(.03)	9.21E-04(.08)
아내소득	-2.2E-03(-.07)	-2.6E-03(-.08)	-4.0E-02(-.01)	-8.0E-04(-.03)
자녀수	-22(-.18)**	-22(-.18)**	-9.3E-02(-.08)	-9.3E-02(-.08)
교육수준	-3.6E-02(-.02)	1.31E-02(.01)	-9.5E-02(-.06)	-4.5E-02(-.03)
아내의 취업유무	.15(.10)	.17(.12)	9.32E-02(.07)	.17(.13)
학령전 자녀의 유무	-4.2E-02(-.03)	-2.3E-02(-.02)	4.07E-02(.03)	8.27E-02(.06)
독립변인				
안정요인		.15(.18)**		.13(.17)**
불안정-회피요인		-.13(-.21)**		-.12(-.22)***
불안정-양가요인		7.77E-02(.13)		3.279E-02(.06)
constant	4.45	3.25	.39	2.79
R ²	.06	.13	.02	.13

*p<.05 **p<.01 ***p<.001

회피가 낮을 수록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가 많아진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애착요인보다는 자녀수가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부수적으로 보면, 통제변인중 자녀수를 제외하고 연령($\beta=-.07$), 가족소득($\beta=.03$), 본인소득($\beta=.03$), 아내소득($\beta=-.07$), 교육수준($\beta=-.02$), 그리고 학령전 자녀의 유무($\beta=-.03$)은 영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취업유무의 영향력은 $\beta=.10$ 이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통제변인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안정요인, 불안정-회피요인, 불안정-양가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1%증가한 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요인($\beta=.17$, $p<.01$)과 불안정-회피요인($\beta=-.22$,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요인이 높아질수록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가 많아지고, 불안정-회피요인이 낮을수록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

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에서 유의미했던 자녀수는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으로 보면, 통제변인인 연령($\beta=.06$), 가족소득($\beta=-.05$), 본인소득($\beta=.08$), 아내소득($\beta=-.03$), 자녀수($\beta=-.08$), 교육수준($\beta=-.03$), 학령전 자녀의 유무($\beta=.06$)의 영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취업유무의 영향력은 $\beta=.13$ 이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우선, 본 연구가설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면, 안정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비일상적인 지지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회피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비일상적인 지지 모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정-양가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비일상적인 지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통제변인에 추가로 투입한 결과, 단지 7%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에 대한 설

명력에 있어서도 통제변인에 추가로 투입한 결과, 11%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설명력은 작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목적 이외의 결과이지만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사회적 지지에서 애착요인보다도 자녀수가 더 큰 영향력을 보인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애착요인이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비밀상적인 지지에 미치는 설명력이 작았던 것에 대해 역시 직무애착 및 헌신이나 직무수행의 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내를 위해 일상적인 지지를 하는 상황 혹은 비밀상적인 지지를 하는 상황은 애착이 활성화되어 애착의 개인차로 인해 행동의 결과가 뚜렷이 나타날 만큼 남편 자신에게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내를 위한 지지라는 변인 자체가 관계적인 측면의 변인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행동적 측면임을 고려할 때, 애착의 개인차로 인해 크게 차이가 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제변인들 중 자녀수는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에 애착요인들보다도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비록 부부간의 애착관계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자녀수의 증가가 부부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더 억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자녀수의 증가가 자녀를 위한 부모투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를 하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결과는 자녀수의 증가가 부부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내를 위한 비밀상적인 지지에는 자녀수는 물론이고 어떠한 통제변인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내가 디스트레스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사회활동상 의무적으로 동반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녀수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애착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전기 남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라는 것과 변화되어 가는 부부관계에서의 기대를 고려하여 볼 때,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가정에서의 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역할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게 하며, 동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직장영역변인으로는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을 가정영역변인으로는 아내를 위한 지지를 선정하고 이에 미치는 부부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가정에서의 두 역할을 모두 기능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화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변인으로서 부부애착의 역할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정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연구가설1-1)과 불안정-회피 요인과 불안정-양가 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연구가설1-2)를 설정하였다. 또한, 안정요인은 아내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연구가설2-1)과 불안정-회피요인과 불안정 양가 요인은 아내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연구가설2-2)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안정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무수행의 질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연구가설1-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그리고, 불안정-회피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불안정-양가요인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의 질에 모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연구가설1-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안정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아내를 위한 비밀상적인지지

모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불안정-회피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비밀상적인 지지에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미쳤고, 불안정-양가요인은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아내를 위한 비밀상적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냈으므로 (연구가설2-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가설1-1), (연구가설1-2), 그리고 (연구가설2-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연구가설2-1)은 지지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으로부터 유래된 부부애착은 부분적이거나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바람직하게 수행하는데 하나의 원천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가족에서의 안정적인 부모자녀간 애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부부애착의 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성인전기 남성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물론 성인기 부부간의 안정적 애착의 유지 및 촉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애착요인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설명력은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은 설명력은 성인전기 남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아동기 부모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유래된 부부애착만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매우 적으며, 이외에도 이 두 영역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주었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이 애착이 활성화되어 애착의 개인차로 인한 행동상의 결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져 올만한 스트레스상황과 관련된 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상 직무애착 및 헌신, 그리고 직무수행의 질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사원들이었다는 점과 아내를 위한 지지의 경우도 남성들에게는 취약한 부분으로서 개인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적인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또한 밝힌 바 있었다. 따라서, 부부애착변인의 다른 변인의 탐색과 아울러, 동시에 연구변인이나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와는 상이한 대상에 대해 그리고 본 연구와는 상이한 직장 및 가정영역 변인에 대해 부부애착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직장영역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사무직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영업사원이나 생산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적당 배당되는 월평균 급여, 판매액, 판매실적(이예봉, 1995: 오진숙, 1994)나 혹은 생산량, 과실발생률, 정확도, 제품생산 속도(McComic & Ilgen, 1980: 김중립, 1993)과 같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성과를 측정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면서 상이한 설명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연구는 Hazan과 Shaver (1990)의 경우, 성인기 애착과 일간의 관계를 유아기 부모자녀 애착과 탐색간의 관계로 대입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으나, 일의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므로 애착과 다양한 직장영역간의 관계를 구체화시켜간다는 점에서도 의의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가정영역에서도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중요한 상호작용유형, 가족내 관계유형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만 제한하여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화시키는 부부애착의 영향력을 선불리 한정짓지 말고, 부부애착의 영향력을

정교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과 가족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과 같은 직장영역에는 불안정-회피요인이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와 아내를 위한 비일상적인 지지와 같은 가정영역에는 불안정-양가요인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Hazan 등(1990)이 언급한 대로, 불안정-회피요인은 관계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일에 몰입하게 되지만 이는 안정요인과 같이 안전기반으로부터 나온 일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는 점이 서로 상쇄효과를 보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Simpson 등(1992)이 언급한대로, 불안정-양가요인은 관계와 친밀감에 몰입하지만,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해소되지 않은 관계의 애착함으로 인해 타인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더 몰입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점이 서로 상쇄효과를 보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의 질에는 애착요인중 불안정-양가요인의 영향력이 컸으며, 아내를 위한 지지에는 애착요인 중 불안정-회피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양가요인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직무애착 및 헌신과 직무수행에서 특히 취약하고, 불안정-회피요인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내를 위한 지지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불안정-양가요인의 경우, 해소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일에 제대로 몰두하지 못하므로 일에서 가장 취약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 Hazan과 Shaver(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정-회피요인의 경우, 항상 거부당했던 관계역사로 인해 관계에 대해 가장 무시하고 회피하는 특징을 갖을 것이라고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니었지만,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부애착변인보다는 자녀수변인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녀의 출산이 결혼만족도나 부부간의 상호작용시간의 감소 및 서로에 대한 관심의 감

소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보고되어왔지만, 부부에게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자녀수라는 구조적 변인이 부부애착과 같은 심리적 변인보다도 아내를 위한 일상적인 지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는 특이할 만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디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거나 불가피한 사회적인 동반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녀수와는 관계없이 안정적 애착이 높아질 때와 불안정-회피애착이 낮아질 때 아내를 위해 지지를 준다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부부애착요인은 성인전기 남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에 유의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부부애착측정도구 중 불안정-회피요인의 신뢰도가 .59로 낮았다. 불안정-회피요인은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관계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요인으로 본 애착측정도구의 문항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애착측정도구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었고, 선행연구들을 보았을 때 부부애착을 측정하기에 존재하는 척도 중 가장 적합한 척도로 판단되어 사용하였음을 제한적이거나 밝힌다.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Collins와 Read(1990)의 측정도구는 신뢰도가 더 낮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신뢰도의 문제가 있음에도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사용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덕일(1996), 장휘숙(1997) 그리고 박광배(1993)의 연구에서는 Collins와 Read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45에서 .78사이에 있다. 이는 유아기와는 달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애착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고 연구자간에 아직 성인기 애착측정도구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있지 않은 데서 기인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논의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전기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대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에 국한하지 말고 더 확대시키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다양

한 직장관련 변인들과 가정관련 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부부애착변인의 설명력을 정확하게 규명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성인전기남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 석사논문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 김은희(1993).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한국의 산업화와 신중산층의 가족 이념.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81-120,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자혜, 김미숙(1990). 화이트칼라 가족연구, 여성한 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82-99, 까치.
- 김종립(1994). 한국기업조직구성원의 동기, 만족, 성과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김호곤(1990). 기업의 공유가치와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금융서비스업에서의 실증분석. 건국대 석사논문.
- 김효신(1987). 회사원 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화여대 석사논문
- 박광배(1993). 사랑과 일에 대한 일-가정 상충효과: 남성들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212-225.
-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대 부모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박치영(1992). 피이드백 탐색행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백경식(1991). 조직분위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 편(1995). 산업 및 조직심리학. 서울: 전영사.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논문
- 신창식(1996).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덕상(1994). 동기부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오진숙(1994). QWL수준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 석사논문.
- 오철환(1985).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도와 조직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 유병관(1983). 직무만족과 직무관련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학 박사논문.
- 윤진(1991).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윤태원(1990).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실증적 고찰. 경남대 석사논문.
-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여름호), 271-289.
- 이예봉(1995). 종업원의 가치관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손해보험 기업을 중심으로. 창원대 석사논문.
- 이종목(1989).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서울: 성원사.
- 이훈구 역(1985). 산업 및 조직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모델과 4범주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발달, 10(2), 123-138.
- 전효정(1996). 갈등해소방법과 결혼적응도: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57-82.
- 조혜정(1993).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혜경(1995). 노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집, 35-80.
- 한국능률협회(1991). 한국의 3000대기업, 1991년도. 서울: 한국능률협회.
- 한경혜(1996).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231-244.

-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황준식(1995). *한국인의 스트레스*. 서울: 밀알.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study on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ell, S, M. (1970).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objects as related to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1, 291-311.
- Bowlby, J. (1973). Self-reliance and some conditions that promote it. In R. Goslin(Eds.), *Support, Innovation, and Autonomy*. London: Tavistock.
- Bray, O, W. & Howard, A. (1983). The AT & T longitudinal studies of managers. In K, W. Schaie(Ed.), *Longitudinal Studies of Adult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Brief, A, P., Burk, M, J., Robinson, B, S., & Webster, J. (1988). Should negative affectivity remain an unmeasured variable in the study of job str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3(2), 193-198.
- Burge, D., Hammen, C., Davila, J., Daley, S, E., Paley, B., Herzberg, D., & Lindberg, N. (1996). Attachment cognitions and college and work functioning two years later in late adolescent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3), 285-301.
- Carnell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27-140.
- Caspi, A. & Elder, G, H, Jr. (1988). *Emergent family patterns: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s*. In R. A. Hinde & Steveson-Hinde(Eds.), *Relationship with Families*, pp. 218-240.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Causen., N. Haan., H, P, Honzik & P, Mussen(Eds), *Present and Past in the Middle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 Chin-Ching, C. (1995). The effects of career salience and life-cycle variables on perceptions of work-family interface. *Human Relations*, 48(33), 265-283.
- Clark-Stewart, A., Permuter, M., & Friedman, S. (1988). *Lifelong Human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Clausen. N.(1981). *Men's Occupational Careers in the Middle Years*. In D, H. Eichorn., J. A.
- Cohen, A. (199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commitment and nonwork domains, *Human Relations*, 48, 239-26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Epstein, E. (1980). *Self concept: A review and the proposal of an integrated theory of personality*. In E. Staub(Ed.), *Personality: Basic Issues and Current Resear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illigan, C. 허란주 역 (1995).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Hardy, G, E. & Barkham,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ttachment styles and work difficulties. *Human Relations*, 47(3), 263-281.
- Hartup, W, H. (1989). Social competence and their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Hazan, C. & Durett, M, E. (1982). Relationships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70-280.
- Hirsch, B. & Reischl, T.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281.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lley, W, H., Field, H, S., & Bamett, N, J. (1976). Analysing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An empirical study. *Personnel Journal, 55*, 457-463.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Howard, A. (1984). Cool at the top: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managers.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 Inkson, J, H, K. (1978).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2)*, 243-247.
- Ivancevich, J, M., Matterson, M, T., Freedman, S, M., & Philips, J, S. (1990). Worksite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45(2)*, 252-261.
- Jacobson, T., Eldelstein, W., & Hofmann, V.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in childhood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112-124.
- Keita, G, P. & Jones, J, M. (1990). Reducing adverse reaction to stress in the workplace. *American Psychologist, 45(10)*, 1137-1141.
- Kirchmeyer, C. (1995). Managing the work-nonwork boundary: An assessment of original responses. *Human Relations, 48(5)*, 515-535.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68(may/June)*, 561-565.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 McCormick, E, J., & Ilgen, D. (1980). *Industrial Psychology*. Englewood Clif: Prentice-Hall.
- Main, M., & Kaplan, N.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Pretherton & E. Waters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slow, A.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 York: Harper & Row.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817-826.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 정옥분 역 (1991). 성인기 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ermutter, M. & Hall, E. (1992). Occupational patterns across adulthood. Perlmutter, M. & Hall, E.(Eds.),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orter, L. W. & Lawler, E. E. (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II: Erwin-Dorsey.
- Quamma, J. & Greenberg, M.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11-230.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285-302.
- Sarason, B. R., Pierce, G. R., She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Scarr, S., Philips, D., & McCartney, K. (1989).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73-287.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Slocum, J. W. (1970). Performance: An analysis. *Industrial Relations*, 9, 431-436.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 Tidwell, M. O., Reis, H. T., & Shaver, P. R (1996). Attachment, attract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a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729-745.
- Vaillant, G. E.(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8.
- Watson, D. & Pennebaker, J. E. (1989). Health complaints, stress and distress: Exploring the central role of negative affectivity. *Psychological Review*, 96, 234-254.
- Watson, D., Pennebaker, J. W., & Folger, R. (1987). Beyond negative affectivity: Measuring stress and satisfaction in the work place. IN J. N. Ivancevich & D. C. Ganster(Eds.), *Job stress: From theory to suggestion*, pp141-157. New York: Haworth Press.

(2002년 5월 31일 접수, 2002년 11월 12일 채택)